

‘치매가족 통합케어’부터 ‘출산하면 더 넓은 집’까지…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‘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·슬로건 공모전’ 수상작 발표
- 정책 제안 1,687건, 슬로건 제안 5,842건 등 총 7,529건 접수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김진오 부위원장, 이하 위원회)는 11일 ‘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·슬로건 공모전’을 개최하고,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.
 -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위원회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정책분야 1등 1건, 2등 2건, 3등 3건 등 총 6건, 슬로건은 1등 1건을 최종 선정했다.
 -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‘치매가족 통합케어’ 아이디어가 차지했다.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·우울 검사·돌봄정보를 ‘통합케어 패키지’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.
 -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‘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’이다.
 -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,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‘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’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.
 - 3등 중 두 개는 주거 관련 제안으로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‘아이-업(Up) 주거전환제’와 신혼집 입주 시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

자금 공백에 단기로 자금을 보증해주는 ‘첫집 전환보증제’이다. 나머지 하나는 ‘대학연계형 ‘로컬크레딧’ 학점교환제’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내용이다.

- 슬로건 분야 1등은 “우리아이 웃음소리, 우리가족 잇는소리”로 아이의 웃음으로 가족의 행복이 이어지고 커진다는 의미를 담았다.
-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,687건, 슬로건 제안 5,842건 등 총 7,529건이 접수됐다.
 -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 1,028건(61%), 고령화 대응 334건(19.8%),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(19%) 순이었다.
 - 단일 주제로는 ‘양육·돌봄·일·생활 균형’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‘결혼·출산지원’, ‘지역소멸대응’ 등이 뒤를 이어, ‘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,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’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줬다.
-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·양육, 부모 돌봄,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 많았다.
 -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으며,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‘조부모 돌봄수당’을 보편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.
- 김진오 부위원장은 “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있는 제안들이 많았다”며 “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수상 제안은 위원회 누리집과 블로그, 페이스북·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공개되며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.

담당 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신용범 (02-2100-1229)
		담당자	전문위원	이경희 (02-2100-1232)

붙임 1. 우수 아이디어 6건(1~3등) 요약본

□ 붙임 1. 우수 아이디어 6건(1~3등) 요약본

구분	제안자	정책 아이디어
1등	정오란	<p><치매 가족 돌봄 사각지대 보완 및 노인 부부 동시 보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매 판정 즉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·우울검사·돌봄정보를 묶은 '통합 케어 패키지',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치매면 배우자 검사·상담 의무 연계 - 돌봄 부담으로 발병 위험 높은 고위험 배우자 대상 감별검사(MRI·CT) 우선 연계 및 비용 지원 확대 - 행동심리증상(BPSD) 고위험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→ 주 1회 정기방문·상시 연락·긴급 시 단기보호 신속 연계
2등	박오우	<p><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원동행·약 수령·장보기·디지털민원 보조·등하원 동행 등 생활 속 작은 돌봄을 업무 단위로 쪼개 짧은 교육·실습 후 인증하는 제도 - 요양보호사 같은 긴 자격이 아닌 업무별 소자격 부여, 범죄경력·안전·응급교육·사고보험 거쳐 지자체 플랫폼 등록 → 수요자는 필요한 업무만 시간 단위 신청 - 중장년 경력전환을 소자격으로 표준화해 돌봄 수요와 직접 연결
	김오현	<p><출산시 주거평형교환 금융지원 및 공공주거 이동 마일리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산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기존 대출 우대금리는 유지한 채 한도만 증액, 자녀 수별 우대 차등 확대(2자녀 이상 이자 면제) -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 시 기존 주택 반납 조건으로 동일 단지·권역 내 더 넓은 공간에 최우선 매칭하는 '하우스 스왑 마일리지' - 출산가구 이주 시에는 어린이집·소아과·학교 갖춘 '육아안심구역'을 우선 매칭하고, 이사로 인한 취득세·중개수수료 100% 바우처 지원
3등	정오지	<p><아이-업(Up) 출산 연계 단계별 주거 전환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형(59㎡ 이하) 입주 후 출산 시 동일·인근 단지 중대형(84㎡ 이상) 공실에 우선 전환 청약권 부여 - 자녀 독립 후 소형으로 옮기는 시니어 가구의 퇴거 물량을 활용하는 '단지 내 주거 순환 예비자 명부제'로 별도 물량 부담 완화 - 기존 지분 승계, 차액은 '아이-업 특례대출'로 분납(1자녀 취득세 50%·금리 0.5%p, 2자녀 면제·1.0%p), 민간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

구분	제안자	정책 아이디어
	정○주	<p><첫집 전환보증제 (결혼을 막는 90일 보증금 공백 해소)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전월세 보증금 반환일과 새 신혼집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 단기 자금 공백(최대 90일)에 공공 단기 전환보증 제공 - 용도는 신혼집 계약금·잔금에 한정, 기존 보증금 반환 시 자동 상환되도록 설계해 장기 대출화 방지 - 고금리 신용대출·가족 차입 없이 결혼 진입 지원 → 기존 금융·보증 인프라 활용으로 낮은 재정 부담, 수도권·광역시 시범 후 확대
	유○현	<p><대학 전공 연계형 '로컬 크레딧(Local Credit) 학점 교환제'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문화·예술·디자인·엔터 학과와 인구감소지역을 1:1 매칭, 학생이 한 학기 상주하며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수행하고 정규 15학점+경력 인증으로 보상 - 폐교·빈집을 '로컬 캠퍼스 기숙사'로 제공, 지역 축제 리브랜딩·특산물 브랜딩·홍보 슛폼 등 전공 맞춤 프로젝트 수행 - 보조금이 아닌 '학점·취업용 포트폴리오'를 보상으로 설계해 우수 청년의 자발적 장기 지역 체류 유도